

포스트 消費時代의 建築

— 石油時代의 終焉에 대한 考察 —

로버트 에이 엠 스타인

POST PROFLIGATE ARCHITECTURE

— Some Observations in the Waning of the Petroleum Era —

Robert A.M. Stern

「새로운 것에 대한 要望은 되풀이 되지만 流行을 제외한 반복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다. 적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는 만족의 일부에는 그 이전의 것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恆久化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革新에는 그 혁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幻影이 있기 때문에 실제의 혁신, 그 자체가 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 타당성은 한층 더 절대적이 된다.

1750년 이래의 建築發展에 대한 현재의 대응은, 다른 어떠한 역사도 그러한 함에는 틀림없듯이 그러한 幻影에 의해서 극히 명확하게 낙인 찍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 革新을 하나의 幻影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한 價値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項의 중요성은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強化되어지는 것이다.」 - Henry-Russell Hitch-cock, Modern Architecture, 1929 -

「美國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 살아 왔다. 그리하여 현재의 世代도 나의 世代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현재는 나의 世代보다 無視된 과거가 많을 뿐이다.」 - Gore Vidal, 1876 -

1960년대 후반, 모더니즘의 붕괴로서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를 취급해온 文學이 형식의 문제에 전념하게 된지 오래이며, 그 결과 하나의 오해가 발생했다. 그 오해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시대의 공허한 形式主義를 다른 시대의 것과 바꾸어 놓았다. 또한 現代 建築,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建築上의 定義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도 모던, 더욱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더니스트의 건축— 특히 1920년대의 풍요로운 모더니즘—은 그 야심과 더불어 중요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을 지원하고 있는 확정주의자의 경제조건은 생각처럼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近代運動의 이론가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희망하는 것처럼 세계의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물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도 볼 수 없다.

지금에 와서 이 사실은 建築家에 의해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건축 이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확실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건축가는 단기의 人的·物質的 손실이 창기의 물질적(그러면서도 다분히 정신적인) 이익에 대하여 냉혹할만큼 균형을 가지는 消費世界와, 새로운 상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비난할 수가 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낭비의 결과로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의도나 신념이 파괴되기 쉬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죽음의 재(灰)에 대한 強化이며 우리들의 都市나 세계 여러 곳을 무법 상태로 물고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석유의 부족이며, 그로 인해 우리 모두를 찢어 갈아서 물질적 발전의 대가나 전통의 가치저하에 한층 더 민감한 것이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의 추이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반영으로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감수성이기도 하다. 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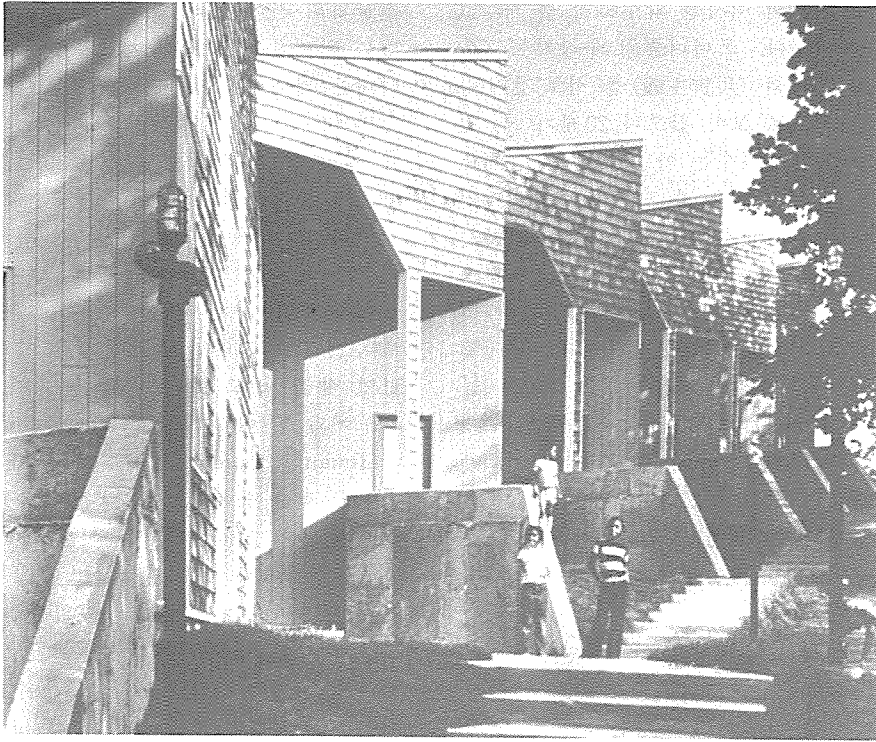
은 잠시도 정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의 진행에 뒤쫓아 가서는 안되며 전진해야 한다.

이러한 傳統에 바탕을 둔 진보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나는 가끔 학생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으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근래에 연약해진 모더니즘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1920년대에 미이스·르 꼬르뷔제·그로피우스 등이 제시한 것과 같은 격조와 빛남과 고결함과 엄격성에 충만한 미래의 전망을 자신들의 내부에 갖추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近代運動이 理想化하고 추상적이며 비물질화한 형태를 종와함에도 불구하고 실리주의(實利的機能主義)와 물질주의(技術第一主義)에 뿌리를 둔 이론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또하나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풍부성을 솔직히 시인하고 진실, 아니 그 이상의 理想(그러나 이 理想은 결코 공상적인 것은 아니다)을 추구하는 한편 工業國家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감소라는 상황 속에서 희귀한 존재로 되어 있는 많은 현대적 비난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돌아다 볼 때 표면상의 대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消費나 消費主義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공업화된 文明上의 고찰을 다시 한



번 밀고 나가면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轉向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감퇴하는 시대에서는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내가 잠정적으로 石油時代의 終焉이라고 표현한 시대에 돌입해 있는 工業世界 내의 廣義의 기본조건에 대해서 건축의 전통적인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 機先을 얻은 반응이라고 시사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인 수준과는 반대로 더욱 실질적인 수준으로서 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어느 건축가가 공공 건축에 매달리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냐는 질문을 받는다. <왜 그렇게 住宅만을?> 하는 질문을 받는다.

공공적 분야에서 포스트 모던의 건축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지금의 우리들은 고심하고 있다. 건축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게임이라든가, 대담한 착상과 고매한 이상을 가진 서양의 젊은 건축가들이 비교적 소규모의 일을 의뢰해 오는 유복한 계급의 후원자를 매혹시키고 있다는 등의 話題 따위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또한 르 꼬르뷔제나 미이스가 부자를 위한 것만이 아닌, 오히려 평범한 프로젝트로 눈이 어두어질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었던 초기 모더니즘時代(위대하고 빛났던 1920년대)의 후원자 기질에 대하

여 여러가지 議論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에게 中流(상급)의 사람들로부터 의뢰된 소주택에 그의 대부분의 작품을 의지해 왔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평가(異論은 있겠으나 그는 미켈란젤로 이후 위대한 건축가로 불리고 있다)를 생각해 보도록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위대한 建築家들의 사상의 실현이 증량의 규모로 밖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自費를 털어 대규모의 공공적인 규모로서 일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탐구했던 일이나, 그 연구가 정확히 말해서 혐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대망상증에 가까운 가공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르 꼬르뷔제의 여러가지 都市計劃이 라이트와 같은 중요한 사회기록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계획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消費文化에 꼭 알맞는 건축의 眞髓를 표시하는 모델이다. 그것들은 기존의 都市를 분쇄하고 백지의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제한 없는 확장과 지금까지의 사회학적 패턴이나 定住패턴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제안이 공간으로서 구체화된 결과가 자연의 붕괴, 인간성의 붕괴인 것이다.

이 붕괴의 충격은, 지금까지 獨自

의 형태로 성장해 온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과도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 모더니즘의 형태와 이념이 工業時代 말기의 實證主義나 物質主義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社會의 理想>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성을 띄게 된다.

르 꼬르뷔제로부터 시작하는 1920년대의 近代主義者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 時代의 文脈 속에서 활동했을 뿐이다. 에너지는 값싸고 풍부하게 약속되어 있었고 공공의 영역은 확장의 전망이 있었으며 1890년대에 일어난 <都市美化> 운동의 의도는 확실히 견재하여 새롭게 공인된 방향만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재건(도시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나 단순히 과거를 가볍게 한 어프로우치까지도)을 시험했던 근대주의자들의 빈번한 실패 후에 이어지는 10년간의 불황은, 건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잃게 하고 많은 젊은 건축가들을 시켜 자기네들은 都市計劃을 가지고 노는 것만이 아니냐 하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듣던 건축비평의 회답으로서 제일 처음 建築上에 나타난 현저한 현상이 역사적인 건조물을 보존하자는 운동이었다. 이 보존이라는 현상은 建築家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강요이며 결코 거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우기 이 보존운동은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을 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는 역사적인 보존(街區이건 개인의 건물이건)을 확고히 지지함으로써 사회에 넓게 침투해 있는 모더니스트 디자인 개념과 시장경제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넘어서 현대적인 작품을 낳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보다 과거의 유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은 명백한 것이다. 역사성 있는 건물을 보존한다는 운동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모더니스트의 건축에 대한 거부운동이며 일종의 <불신임> 투표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그 운동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다.

그 운동은, 건물과 문화와 시간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에다 보다 규범적이며 지속적인 시점을 틀림으로써 얻

어지는 默示의인 새로움의 찬미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보존의 운동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잠재적인 신뢰이며 동시에 과거를 집합적으로 현재에 비추기 위한 전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귀중한 공예품의 보존에 대하여 사회의 관심이 다른 분야에까지 방향을 돌린 결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이 일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集合住宅〉에의 관심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중요성은 住居가 현대적인 요구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념형태의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축가는 集合住宅의 형태학 중에서 건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 자체도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건축은 거의 완전히 公共의 분야에 관한 것, 즉 문화적·종교적·정치적인 시설이었으며 그것들은 이러한 시설을 지배하는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주거였다. 쉽게 말하자면 건축과 공공적인 시설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일반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건물에는 공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두 영역이 있고 〈신전〉과 〈소주택〉이라고 하는 두개의 생태적인 형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는 그 활동의 힘을 신전에서 집요하여 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個人建築의 영역이었던 활기에 찬 職人이나 일반시민의 〈소주택〉의 대부분, 그리고 일상용의 건물 집합인 마을이나 촌락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한 서민의 건물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신전으로부터 얻은 인스피레이션을 풍토에 맞추어 해석하고 고친 것이었다.

産業革命이 일어나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형태가 출현하고, 철도의 驛舎·공장·사무소 등이 그 예로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그때까지의 공공건축과 개인건축과의 사이에 있었던 구분에 명확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건축가들이 集合住宅과 같은 공공의 분야에서 건축가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모더니즘을 향한 論客들의 비난은 심한 곡해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곡해에 의해서 우리들은 극

히 최근의 역사를 확실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주장자는 〈合理主義〉와 〈現實主義〉를 서로 전허다 큰 것으로 보아 왔으나 20세기 초 건축가의 대다수는 이 두개를 같은 同化의 안팎으로 볼 수 있었다. 나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집합주택에서 말하는 모더니스트의 운동(대량생산·보편성·기호화된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이 택한 연구방법과 아카데미한 전통(특수성·개별성·修辭學이 강조되고 있다)이 택한, 그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비평의 기록을 시험해 본적이 있다. 이 차이는 르 꼬르뷔제가 근년에 행한 몇가지 제안에서 제시되었던 양자의 비평 대비에 따라 명확히 할 수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경향은, 모더니스트의 체험과 금세기 초기의 아카데미한 전통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찰스 무어의 코로라도 아파트먼트에 있어서의 복합건축은 상업 중심지에 상응한 갖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회답이다. 그것은 地上레벨과 슬래브와 탐의 개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질에 대한 회답이며 태양의 방위나 경관에 따라 생기는 조건에의 회답인 것이다.

한편 이 건축의 옥상층이나 지상층의 私用庭園 주변은 1922년 르 꼬르뷔제의 Immeuble Villas Scheme 계획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건축의 복합성 중에는 세기말 파리장의 아파트, Albert Hall Mansions 혹은 1920년대 뉴욕의 전형적인 아파트가 가지고 있었던 특이성과 같은 생명력이 숨쉬고 있다.

로버트 벤추리의 Guild House(1962년)나 Brighton Beach의 집합주택(1967년)은 현재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폭넓음과 그 회답의 특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극히 당연한 빌딩 타입과 지역성에 연결시키는 일에 따라 예술의 경지로까지 높일 수 있는 조형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문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작품의 질을 物質主義의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그것이 기능적이라는 점에서 진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사용자가 작품을 하나의 총합체로서 포착하고 자기 스스로의 주거와 그 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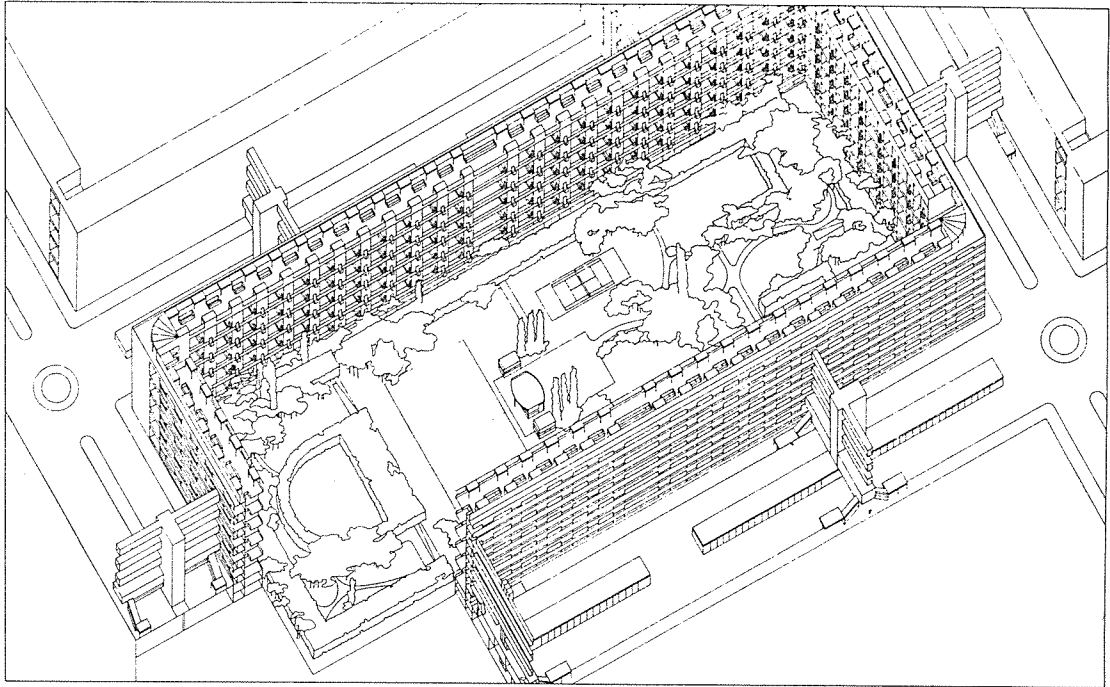
건물과의 사이에 바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의미론상의 명확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월남전쟁의 大敗가 미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었으며 경제제도를 황폐화시켜 그로 인해 집합주택의 분야에서의 활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무어나 벤추리에 의해서 제시된 두세개의 기회가 그러한 論旨에까지 이르렀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어와 롱 아일랜드의 Huntington, Whitman Village의 집합주택은 지금까지의 작품 중에서 그와 같은 이념을 실현시킨 가장 세련된 작품이다. 그러나 좀더 딱딱한 말을 빌린다면 건축상의 결보기로는 중류 소득층의 교외주택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난한 助成金으로 이루어진 현혹적이며 숙달된 시설인 Whitman Village나 Venturi & Rauch 사무소의 이러한 작품들은, 〈美國都市의 심볼〉이라고 이름이 붙여질만큼 이나라 특유의 가치세계에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껏 그러한 의미를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와 같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세계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건물의 심각한 부족이라는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성이 결여된 교외 주택이나 환경적으로 빈약한 과거 30년간의 교외는 近代運動을 무시한 것에 의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외가 대중적인 수준을 받아들이도록 의도된 근대 도시개혁의 유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운동에 참여한 建築家들은 교외를 연구하기 위한 분야를 끊임없이 피해 왔다. 그들은 교외 空間計劃의 기본이 고밀도로 세워졌다는 점에 대한 도시적 과제에 적응한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예를 들면 르 꼬르뷔제의 Villa Radieuse는 성공하지 못했다. 몇가지 실패 원인은, 이 계획이 〈수직정원도시〉로서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미국의 재개발에 대한 르 꼬르뷔제思想의 영향은 가장 전통적인 도시 중심부의 교외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



의 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지지는 어떠한 사회적 필요, 風致的 필요 또는 쾌적성의 필요로부터 생긴 것만은 아니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권리 이전에는 벤츄리나 스코트 브라운, 그외의 사람들에 의한 교외의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Herbert Gans와 같은 사회학자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세워졌다. 하나의 議論이 전개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확산된 교외의 賞讚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러한 건축의 존재를 容認하고 이해를 구하는 議論일 뿐이었다.

최근 새로운 교외의 의의있는 발전을 위한 方案을 제안하기 위한 시도가 몇가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벤츄리의 Folkways 계획이나 무어의 Whitman Village는 모두가 확실하고 주택다우며 교외답게 보이려는 규모와 이미지를 갖는 저층의 집합주택群을 제안하고 있다. 무어는 이미지의 문제와 저층이면서도 중밀도의 교외 집합주택에 자동차가 가져오는 갖가지 문제 등을, 그의 실현되지 않은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와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즈 파크의 계획안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교외를 위한 지하철의 제안이 쇠퇴해 버리고만 中規模都市는 그 재개발의 수단으로서 자동차時代 이전의 교외규모의 전통에서 그 회답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은 South Bronx 와 같이 심각한 고민을 가진 지역문제와 관련된 콜롬비아나 예일大學의 학생들이 새삼스럽게 진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온건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사회적인 책무>로서 고의로 레테르를 붙인 지역에 대한 평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전통과 創意 사이에서 분열된 상태에 의해 발달되어 왔던, 建築作品의 분류학의 문제처럼 생각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란, 모더니즘精神이 과거의 작품과 투쟁하는 경우가 핵심으로 되어 왔으며 論點을 다시 생각해 보면 순수한 <진보>를 피해왔던 것이다. Ezra Pound가 70년 전에 우리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한것과 같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불해 왔던 대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즉 현대의 기념건축물이 그 결과로서 정신과 육체의 간격을 가져왔다.

내가 여기에서 정리한 作業은 현시점에서 美國建築의 포괄적인 평론을 의도한 것보다는, 극히 정평있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과 이론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건축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지표시를 계속해 온 건축가의 할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著作이나 設計한 건물에 이미思想의 명확한 표현을 확립해 두고 있는 建築家の 최신작품은 불과 얼마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아무런 註釋도 없이 정리하

여 내어 놓았다. Gehry · Graves · Moore · Storn · Jigerman · Venturi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느 경우에서나 최근 완성된 작품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금후의 발전을 표시하기 위한 계획안도 병행하여 가지고 있다. 다른 作品의 대부분은 보다 젊은 건축가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의 역량이 반드시 뒤흔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계획을 통한 사상적 표현이 그다지 명확치 않다. 이들의 작품은 보다 상세하게 거론되었다.

여기에서 선택된 건축가의 대다수는 전통적인 건축 구조상의 가치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타이포로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고, 건물을 보존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수단은 제시된 문제에 의해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젊은 건축가가 작품을 제시할 때,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감을 주기 위해 나는 작품을 지리적으로 정리하고 작품의 게재에 앞서 그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짧은 논문을 실는다. 그것은 독자를 위한 지리적인 관계에 있어 美國文化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필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

나는 이 일이 현재의 이론과 실천을 이상화시키는 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